

BTS RM 솔로 2집, 미국 빌보드 앨범 차트 5위로 첫 진입



▲ 그룹 BTS RM, 사진=백허트뮤직

그룹 방탄소년단(BTS) RM의 솔로 2집 '라이트 플레이스, 롱 퍼슨' (Right Place, Wrong Person)이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 5위로 처음 진입했다.

2일 빌보드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 앨범은 이

번 차트 집계 기간 5만4천장에 해당하는 앨범 유닛 (Album Units)을 기록했다.

'빌보드 200'은 실물 음반 등 전통적 앨범 판매량, 스트리밍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SEA),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TEA)를 합쳐 앨범 소비량 순위를 매긴다.

RM은 2022년 발매한 솔로 1집 '인디고' (Indigo)로 '빌보드 200' 최고 3위를 기록한 바 있다. 그는 이로써 두 앨범 연속 '빌보드 200'에서 '톱 10'에 진입시켰다.

빌보드는 이번 앨범에 대해 "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 (미국 제외)에서 모두 '톱 30'을 기록한 선행 싱글 '컴 백 투 미' (Come Back to Me)가 수록됐다"며 "이 앨범의 첫 주 판매량은 종이 상품과 다른 수집품이 포함된 13종의 서로 다른 CD 사양으로 뒷받침됐다"고 설명했다.

뉴진스, 빌보드 '21세 이하 21인' 선정



▲ 걸그룹 뉴진스, 사진=연합뉴스

빌드가 선정한 21세 이하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 21인에 한국 걸그룹 뉴진스가 뽑혔다. 이 명단에 이름을 올린 K팝 아티스트는 뉴진스가 유일하다.

미국 빌보드는 지난달 31일 뉴진스가 포함된 '21 언더 21' 명단을 공개하며 "뉴진스는 '글로벌 200' 차트 10위권에 3곡을 진입시키는 등의 성과를 거두며 데뷔 후 2년간 K팝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해 왔다"고 밝혔다.

빌보드는 매년 앨범과 곡 판매량, 스트리밍 규모 등 각종 지표와 업계에 미친 전반적인 영향력을 고려해 21세 이하 아티스트 21인을 선정한다.

뉴진스는 지난해 두 번째 미니 음반 '갯 업'으로 데뷔 1년 만에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 정상에 올랐다.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에는 '디토'와 '슈퍼 사이'를 비롯해 5곡을 진입시켰다. 지난 3월엔 '2024 빌보드 위민 인 뮤직 어워드'에서 올해의 그룹상을 받았다.

타임지 "선재 업고 튀어, 올해 최고 K-드라마"

미국 타임지가 한국 tvN의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를 "현재까지 올해 최고의 K-드라마"라고 극찬했다.

타임지는 지난달 30일 '선재 업고 튀어'가 피날레를 장식하며 올해 최고의 K드라마가 된 방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 매체는 "2024년이 절반 남았지만, 앞으로 선재 업고 튀어로부터 '올해 최고작'이라는 타이틀을 훔치려 하는 한국 드라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 드라마는 친숙한 장르를 사용, 스텝 넘치고 예상치 못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었다"고 호평했다.



▲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 포스터, 사진=tvN

타임지는 "이 드라마는 피할 수 없는 운명과 그것에 저항하게 만드는 다양한 종류의 사랑을 중심 주제로 구성했다. 시간은 물론 운명을 초월하는 사랑 이야기를 선사하고, 그 과정에서 고등학교·대학·직장 로맨스는 세 가지 이야기를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드라마는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톱스타 선재와 그를 살리기 위해 과거로 간 솔의 로맨스다. 시청률 4~5%대에 그쳤으나, 화제성 1위를 휩쓸었다.

팝업 스토어와 최종회 단체 관람 이벤트, 변우석 팬미팅 사이트 서버가 다운되며 매진, 2049 여성 사이에서 신드롬급 인기를 끌었다.

숫자퍼즐 정답

7	9	2	3	5	4	8	1	6
1	3	5	8	9	6	2	4	7
4	6	8	7	1	2	3	5	9
5	7	6	9	2	8	4	3	1
2	8	1	6	4	3	7	9	5
3	4	9	5	7	1	6	8	2
6	5	3	1	8	7	9	2	4
8	1	4	2	6	9	5	7	3
9	2	7	4	3	5	1	6	8

타운뉴스 업소록

"리스팅 신청하세요!"

타운뉴스 업소록 신청서

Phone: _____

업소명(한국): _____ 주소: _____

영판: _____ City: _____ State: _____ Zip: _____

업종: _____

- 영문은 대문자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또는 변경 사항이 있는 업소에서는 내년도 개정판을 위해 지금 곧 수록 신청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 광고 게재에 대한 상담을 환영합니다.



Tel 562.404.0027 Fax 562.404.0039
14311 Valley View Ave. #202, Santa Fe Springs, CA 90670

info@townnewsusa.com